

2024년 02월 28일 (수요일) 17시 시청자위원회 회의록(전문)

참석

- 위원 : 강문식위원장, 박병희위원, 박성주위원, 박병현위원, 천지연위원
- 회사 : 대표이사, 경영심의센터장, 방송사업센터장, 보도센터장, 콘텐츠센터장

위원장 : 시청자위원회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갑진년 새해 시청자위원회 올해 첫 모임 시작하였습니다. 내실 있게 소중한 의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수MBC 이호인 사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대표이사 : 시청자위원회가 좀 더 내실 있고 알차게 운영을 해서 저희 좋은 방송 만들 수 있도록 하겠고요. 회사도 좀 더 반듯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뵙게 돼서 좋습니다.

위원장 : 이번에는 주요 부서별로 전화 회기 업무 설명과 다음 회기 계획 들어보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복현 콘텐츠 센터장 말씀을 듣겠습니다.

콘텐츠센터장 : 콘텐츠센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추진했던 업무하고 3월 계획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집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방송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지난 연말에 있었던 박성현의 음악식당 연말 콘서트 '다 고마워지는 밤'을 1월 16일, 1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층의 시청자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TV로나마 1월 16일 날은 그 저녁시간 프라임 시간대에 방송을 했고요. 1월 20일은 심야 시간대에 풀버전으로 해서 두 차례 방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섬마을식탁도 작년부터 계속 제작해 왔던 것들 지금 완료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 2월에는 여수 선죽도 학공치 및 막걸리 편을 방송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수 지난해부터 했던 세 편을 종합해서 27일 날 종합편으로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흥 편도 지금 세 편 제작 중인데요. 두 편은 작년에 방송을 마쳤고요. 마지막 편으로 고흥 해조류 감태 8회 편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음 주 중으로 8회까지 추가 촬영을 해서 3월 초 정도에는 제작 완성해서 방송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년 전쯤에 방송 제작 방송한, '마을이 키운다.'라고 한두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례 토지마을과 개도 섬마을의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요런 부분에 대한 공익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 설 연휴를 기해서 저희 로컬에 한번 앙코르로 편성을 했고요. 또, 김대중 탄생 100주년 다큐 특집 다큐를 목포 MBC에서 제작했고. 공동 편성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트로트클라스 시즌3 계속 제작 및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는 공개홀에서 3일 연속 공개방송 팬들과 시청자들 함께하는 공개방송을 했고요. 그리고 2월에는 지난주에 여수 녹테마레에서 녹화했고 그다음 목포 MBC하고 공동제작 형식으로 추진해 이번에는 강진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날 있었던 강진 청자축제 축하쇼를 저희 트로트 클라스 프로그램이 공동으로 들어가서 축하쇼를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난방송 표준 메뉴얼 일부 개정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3월 4월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3월에는 뭐 특별하게 요즘은 개편 시즌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티비와 라디오 프로그램별 코너 개편들을 좀 고민을 해서 새봄을 맞이해서 개편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도센터와 회사 전체가 선거 방송 기획단을 구성해서 방송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4월 10일에 있을 22대 국회의원 선거 토론방송 및 개표방송도 보도센터 그다음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트로트 클라쓰는 봄철 맞이해서 순천 낙안읍성 녹화 계획에 있으며 그다음에 정원박람회 재개장 관련 공개방송 등 이렇게 기획을 해서 계속해서 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콘텐츠센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네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셨네요. 요즘 그래도 제일로 많은 이슈가 있는 지역 공공의료와 4·10 총선관련하여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보도센터의 보고 부탁드립니다.

보도센터장 : 보도센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는 일단 새해 첫 시군별 현안 사업, 시장 시정 방향 점검 기획 뉴스로 제작했었고, 그다음에

2026 섬박람회 준비 상황이라든지, COP 유치 활동 요런 내용도 기획 뉴스로 제작했었습니다. 전남 의대 유치 전망 순천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내용도 있고 전세 사기가 계속적으로 좀 활기에 쳐서 기사로 냈습니다. 그리고 선거구획정 지금 가장 또 핫한 이슈인데요. 선거구획정 어떻게 정해지나 그리고 지금 여수상공회회장 선임 관련 오늘 지금 선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공회수 회장 선임 경쟁한다는 그런 내용도 취재를 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4월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선거가 4월 10일이라 총선에 좀 주안점을 두려고 합니다. 방금 전 콘텐츠센터장도 얘기했는데 총선 앞두고 보도는 뭐 당연한 얘기고 선거방송 토론회도 민주당 경선후보 토론회하고 본선 토론회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략 한 5개쯤 선거구라 한 9개에서 10번 정도 토론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토론회를 해서 후보자들에 면면하고 또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유권자한테 정확하게 좀 전달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선거구 획정 요것도 지금 이제 내일 확정이 되는데요. 선거구 획정에 따라서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계속 취재하고요. 정원박람회장이 지금 다시 또 곧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원박람회장이 어떻게 좀 바뀌는지 취재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여수산단 방향, 제철소의 업황 전망이라든지, 그리고 물가 인상에 따른 또 서민들의 어려움 같은 것도 계속적으로 제작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후보자 지지율 관련하여 2차 여론조사가 4월 1일하고 2일 양일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차 여론조사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좀 변화됐는지도 비교해서 또 여론조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뉴스레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뉴스레터라고 지금 따로 저희들이 보도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나가는 일반적인 그런 뉴스 외에 일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뉴스를 매일 아침 월 수 금 이메일로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가입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각 이메일로 뉴스가 나가는데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주요 소재는 맛집, 일자리, 부동산, 전시, 행사 등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독자를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구독자는 추이는 저희가 한 지금 현재 한 1800명 정도 됩니다. 순방문자 수나 도달 기반이 아니면 좀 취약한 편이고 소셜 공유를 통한 확산세가 여전히 좀 더딘 편입니다. 그래도 검색 노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유기적 구독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뉴스레터를 이어갈 생각

이고 공익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십니다. 혹시 위원님들도 들어가셔서 이메일 한번 접속하셔서 한번 받아보시면 월, 수, 금 아침 9시면 딱 들어옵니다. 자기 이메일로 딱 들어오는데 우리 주변에 많이 알면서도 모르는 그런 생활뉴스들을 접할 수 있어서 여수 순천 광양의 보편적인 다 뉴스입니다.

대표이사 : 저희가 이제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지상파라는 플랫폼이 디지털 시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시청자 접점이 좁아졌고 지상파 자체는 노령화, 시청자 층이 고령화 노령화되어 있고 젊은 층은 지상파 플랫폼으로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고 모바일 폰으로 스마트폰으로 그다음에 디지털 기기로 다 소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자 접점을 늘려야 그러니까 시청자 접점을 늘려야 되고 그리고 뭐 이탈에 있는 젊은 시청자층을 다시 유입시켜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숙제를 안고 있는 이 뉴스 레터는 우리 지역에 대한 시청자 접점을 좀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장 전통적이고 정형적인 뉴스 말고 실제 구체적으로 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좀 제공해서 지역사회와 같이 성장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본 생각을 갖고 출발을 했고요.

거기에는 지역 거주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단기적으로 오시는 관광객 그리고 몇 달 그리고 일이 년 체류하실 어떤 생활 주민 개념까지 같이 넣어서 이분들이 이 지역에 와서 살게 될 때 그리고 이 지역을 오랫동안 살아온 분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한 정보 뭐 교통정보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정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적인 수요에 대한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정보도 있고요. 이런 소소한 정보들을 들어가면 다 알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홈페이지에 계속 축적이 돼서 일정 기간 지나면 씨티 가이드북을 만들려고 그러합니다. 이걸 이 한 거를 보면 내가 우리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쉽게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목표로 하고 그러고요. 뭐 유튜브나 디지털 쪽으로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많이 유통시키고 노출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뉴스레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손쉽게 다 가갈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접점을 좀 늘려야 되겠다. 근데 방향이 우리 공동체 이 지역사회 전체에 같이 성장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석 달 채 못했는데요.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더 배가시킬 거고요. 우리 시청자 위원님들 많이 좀 성원해 주시고 도움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사업센터장 : 유인물 참고하시면 1, 2월 달은 저희 사업센터 같은 경우는 특이 사항을 3월 달부터 준비했던 상황이고요. 3월 아카데미부터 해서 올해 지금 아카데미를 스타트할 계획입니다. 3월 21일 권정윤 박사를 초청해서 '트렌드 코리아'라는 주제로 소비 트렌드 관련된 아이টে으로 아카데미 3월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매년 저희가 한 2, 3년 계속 해 왔는데요. 올해 지금 낭만버스킹 청춘버스킹 또 입찰사업이 3월 초에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PT 준비해서 수주할 수 있도록 또 마지막 막판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4월 14일 저희가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를 이번에는 여수 MBC 주관으로 해서 MBC 경남하고 공동 주최를 합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주관을 한 행사여서 광양 섬진강 둔치에서 이번에는 마라톤 대회 4월 14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접수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3,4000 명 정도 내외 수준에서 보통 접수가 됐었는데 현재 순조롭게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기획공연으로는 예율마루에서 지금 뮤지컬 '썸데이'라고 해서 대학로 공연인데요. 그거와 관련해 기획 중에 있습니다. 준비해서 차질 없이 문화 공연들까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병희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박병희 위원 : 예 안녕하세요? 순천대학교 박병희입니다. 여수 MBC 특히 지역에서 언제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고, 전남 동부권이 이게 큰 커뮤니티라고 하면, 우리가 같은 커뮤니티 안에 있구나 이걸 느끼는 게 같은 방송을 본다는 거는 내가 산 지역에 뉴스 어떤 일을 여수MBC가 다루는구나 이럴 때 좀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지방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일들을 반드시 그리고 또 중한 이슈로 다뤄 토론한다든지 적절하게 잘 수행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순천대 교수로서 순천대 의대 문제를 또 좀 잘 다뤄주시고 비중 있게 다뤄 주셔서 특별히 감사합니다. 특히 보도센터에서는 의대 문제 외에도 전세 사기에 대해서도 다뤄주시는데 저는 이것 보면서 전국적으로 큰 다른 데에서 인천에서 주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알았는데 순천에서도 이런 큰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이 방송을 통해서 알게 돼서 굉장히 유익한 뉴스였습니다. 그다음에 시군 선거구

확정이라든지. 총선과 관련된 뉴스 그다음에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포스코퓨처엠 이런 최근에 비교적 잘 나가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의 동향을 지역민들에게 알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하나 떠오른 것은 제가 최근에 체험한 걸로는 순천된 물가가 상당히 평소에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광주에서 통근하던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기름값도 지출한 편이다. 이랬는데 휘발유값 또 순천이 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 어디 한 지역에서 최근에 김밥과 라면을 먹는데 거기가 특별히 싸긴 했습니다. 5500원이더라고요. 두 개 합쳐가지고 근데 순천에서 제가 먹는 게 7000원이 들었어요. 똑같은 메뉴가 그러니까 같은 물론 품질 차이가 물론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뭐 같은 브랜드 프랜차이즈 그런 게 하여간 그래서 그 다음 기회에 인제 정말 순천이 정말 물가가 비싼지 여수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다른 지역하고 한번 비교해 본 것도 지역민들의 궁금증을 좀 풀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물론 지역별 지금 소비자물가지수가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지역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금년 내 물가가 해당 지역에서 얼마나 올랐는가 이것만 비교하기 때문에 지역별 비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이사 : 여수 같은 경우도 관광지 물가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사실 서울과 거의 차이 나지 않을 만큼 기본 물가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수시에서 시 차원으로 물가점검을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주 위원 : 물가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특히 청년세대 같은 경우는 외식 인구가 기성세대보다 훨씬 많거든요.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학생식당을 가보시면 아마 거기는 5000원 하더라고요. 학생 외 일반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이것은 그만큼 이제 물가가 비싸다라는 방증이 되고 또 청년 인구들이 그만큼 힘들어진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타지역에 가면 이 정도 가지면 지금 한 달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여수에서는 최소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더 해야 살 수가 있다라는 청년들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위원장 : 그 관광지 보게 되면 물가가 지자체하고 지역민들이 그게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광양에 매화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그 주변에 저기 주민들을 보게 되면, 임대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임대를 해주는 데 보름 임대 가는데 5000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임대를 해서 오는 상업 인들은 보름 만에 매출을 얼마나 올리냐면 2억을 올려요 그러면 이게 다 월로 전환되냐면 다 이게 바가지 요금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됨으로써 지역의 그런 좋은 어떤 축제들이 이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또 지자체도 보게 되면 뭔가 계획적으로 미래 발전을 위해서 진행하는 이런 계획이 다 미뤄지고 한 번쯤은 우리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 심층 취재해 가지고 가는 방향을 좀 정해두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어떤 논리인 것 같은데, 아마 다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지역민들을 보호해낼 부분도 있고 또 외부 상인이 끼어들어 와서 자기들의 어떤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매화축제 주민들이 5000만 원 주고 임대를 하지만 그분들은 임대가 적은 수익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정도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돼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또 지자체나 지역에서 또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총체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됐을 때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딱 문제로만 지적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성위 위원께서도 추가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성주 위원 : 뉴스를 12월 달부터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에 있어서 첫 번째로, 방향성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요. 디자인이 깔끔하고 국민에 쉽게 볼 수 있고 좋은데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콘텐츠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동부권에서는 서부권의 이슈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니까 중앙 아니면 뭐 광주의 광주권 뉴스를 본다거나 그렇게 해서만이 뉴스를 접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뉴스레터에서 또 서부권 뉴스를 선별하셔가지고, 한 줄 스트레이트 그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기사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게 있으면 좀 더 많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장 : 우리가 SNS에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등 이것 다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메일을 보고 이것을 보려면 글자가 너무 뻑뻑하고 많아서 이게 잘 안 보게 됩니다 확대해보고 축소시키

고 하는데 뉴스레터의 모바일용으로 우리 지금 핸드폰으로 쉽게 볼 수 있게끔 편집이 되면 더 훨씬 더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핸드폰으로 정보를 검색하는 비율이 대략 9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많은 그래도 이메일을 많이 보는데 일반적인 뭐 업무적일 거라면 모르겠죠. 그렇지만은 이런 어떤 뉴스레터 정도라면 가볍게 봐야 되고 요점 정리가 잘 돼 있어야하는 것이며 핸드폰으로 좀 볼 수 있는 전용 좀 뉴스레터가 있었으면 저는 참 좋습니다. 저도 우리의 여수MBC뉴스만 보게 되면 저 놓치는 게 많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핸드폰으로 딱 요점 정리돼서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표이사 : 이메일은 저희가 실험 단계인데 석 달을 실험을 해 보고 이제 평가를 하고 또 고쳐서 더 낫게 진화시켜 나가고자 하는데 이것이 일정 부분 쌓이면 어플리케이션으로 바꾸면 이제 그때 모바일로 최적화된 콘텐츠 서비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또 이게 일정 부분 성장해야 되는 거고, 성장한 걸 토대로 해서 또 모바일 버전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데, 지금 실험을 하면서 좀 이게 어느 정도 지역의 반응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시켜 진화시켜 나갈지 이런 몇 가지 고민들을 한꺼번에 같이 하면서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 순천대 글로컬 사업 자체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홍보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순천대도 보게 되면 글로컬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콘텐츠가 없어요. 그러면 방금 우리 뉴스레터하고 같이 해서 순천대에서 좀 투자하고 그래서 만들어서 같이 좀 뭔가 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천지연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천지연 위원 : 뉴스레터 관련하여 이메일보다는 저는 SNS로 하는 것이 굉장히 더 젊은 층까지 다 소화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자주 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메일 같은 경우에도 몇 번 그러니까 지금 월, 수, 금을 보내신다고 했는데 월, 수, 금을 보내도 처음에 몇 번 보지만 만약에 이제 불편하고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아마 이메일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는 아예 열어보지도 않아요.

또 한 가지는 여수MBC에서 지금 여러 가지 방송들 많이 제작하시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에 대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이 참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관련 사항을 클릭하면 그거와 관련된 이전의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나와서 내가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일일이 시청자 그리고 들어가서 뭐 관련된 정보나 프로그램 찾아 들어오고 이거 말고 이제 그런 식의 뭔가 인터페이스가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뉴스레터가 올라올 때 그거와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들이 같이 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같이 지금 보기에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전체 지금 여수MBC에서 만들고 있는 방송을 한 뉴스레터 이런 것들이 좀 DB화될 수 있는 그런 좀 시스템이 좀 있으면 요 것이 쌓이게 되면 굉장히 좋겠다.

나머지는 그다음에는 지금 이제 3월이잖아요. 이제 3월 4월 해가지고는 이제 봄이 되니까 축제들이 많이 시작이 될 것이고, 3~4월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식중독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업소에 대한 위생교육, 위생 점검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점점 비슷해져가는 지역축제에 있어서 지역별 특성을 갖춘 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병현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병현 위원 : 요즘 여수 쪽에 장염 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게 여수 돌산 쪽에 관광 펜션이 우후죽순 생겼고 분류 처리 과정에서 결국 노로바이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역학조사를 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뉴스의 자막에 중국어 베트남어 자막을 나오는 것을 시청했습니다. 그건 참신한 아이디어였지 않나 생각하는데 대신 이제 너무 자막 위주로 가게 되면 보도 내용에 자체에서는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게 좀 단점이 될 수는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오타나 문법상 오류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관련하여, 저는 ‘섬마을식탁’ 프로그램을 굉장히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간혹 아는 분들이 한 분씩 나오는 것이 굉장히 좀 메리트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제가 낚시를 가서 알게 됐던 분 아니면 단골 환자였던 분이 출연해 펼쳐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제 생각에 ‘나는 자연인이다’ 보다 더 승산이 있다고 생

각합니다.

추가로 편성표 상 조정이 가능하다면 경쟁력있는 시간대에 섬마을식탁을 배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이상으로 여수MBC 2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귀한 말씀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